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1. 7

Manna of Choonghyun

##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신명기 · 고린도전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 오직 예수 그리스도

## ● Contents

8 매일성경묵상 고전 1장 ~ 고전 2장

12 1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0 매일성경묵상 고전 3장 ~ 고전 8장

28 2과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36 매일성경묵상 신명기 9장 ~ 신명기 14장

44 3과 성경과 그 전투

52 매일성경묵상 신명기 15장 ~ 신명기 20장

60 4과 네게 무슨 상관이냐?

68 매일성경묵상 신명기 21장 ~ 신명기 26장

76 5과 많은 지체, 오직 한 몸

『중현의 만나』는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를 돕기 위해 중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 7 July 2011

| 주 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
|     |            |            |            |
| 3   | 4 고린도전서 3장 | 5 고린도전서 4장 | 6 고린도전서 5장 |
|     |            |            |            |
| 10  | 11 신명기 9장  | 12 신명기 10장 | 13 신명기 11장 |
|     |            |            |            |
| 17  | 18 신명기 15장 | 19 신명기 16장 | 20 신명기 17장 |
|     |            |            |            |
| 24  | 25 신명기 21장 | 26 신명기 22장 | 27 신명기 23장 |
|     |            |            |            |
| 31  |            |            |            |

August

8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    |    |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교회주요일정

7월 3일

제5차 성찬식  
맥추감사주일

나의 주요일정

1 고린도전서 1장

2 고린도전서 2장

7 고린도전서 6장

8 고린도전서 7장

9 고린도전서 8장

14 신명기 12장

15 신명기 13장

16 신명기 14장

21 신명기 18장

22 신명기 19장

23 신명기 20장

28 신명기 24장

29 신명기 25장

30 신명기 26장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덴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살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첫 공동묘지를 만든 장본인이고,  
그의 모든 후손들도 그곳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히 9:27).

우리 모두는 공동묘지에 살고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4).

2011년 7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고린도전서 1장  
찬송가 93장

목/상/노/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급하게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면 그들 안에 분쟁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고상하고 놀라운 것일지라도 결코 온전할 수 없으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며 마침내 멸망을 자초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왔는지를 돌아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다툼과 분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됩니다.

• 미쁘시도대(9절) : 미쁘시도 다리는 표현은 헬라어 파스토스의 수동적 의미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을 만한, 신뢰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을 의미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기도제목

- 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 성령으로 알게 되는 지혜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전도함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드러내려 했습니다. 이는 믿음은 결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것은 오로지 성령님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는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전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결코 이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결코 십자가 복음을 믿을 수 없으며,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사명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모든 듣는 이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고린도전서 2장  
찬송가 205장

록/상/노/트

· 온전한(6절) : 온전한 자를 설명하는 온전한(텔레이오스)이라는 용어는 헬로스(곧, 마침, 목표)에서 유래하여 완성한, 완전한 의 의미로 사용된다. 바울서신에서 이 온전한이라는 용어는 '성숙한 성인이 된 이란 의미로 주로 사용되며, 종종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의 의미로 나온다. 고전 13:10에서 온전한 것은 우리의 현재의 특징인 불완전한 모든 것이 극복되는 미래 세계를 의미한다.

### 기도제목

- ①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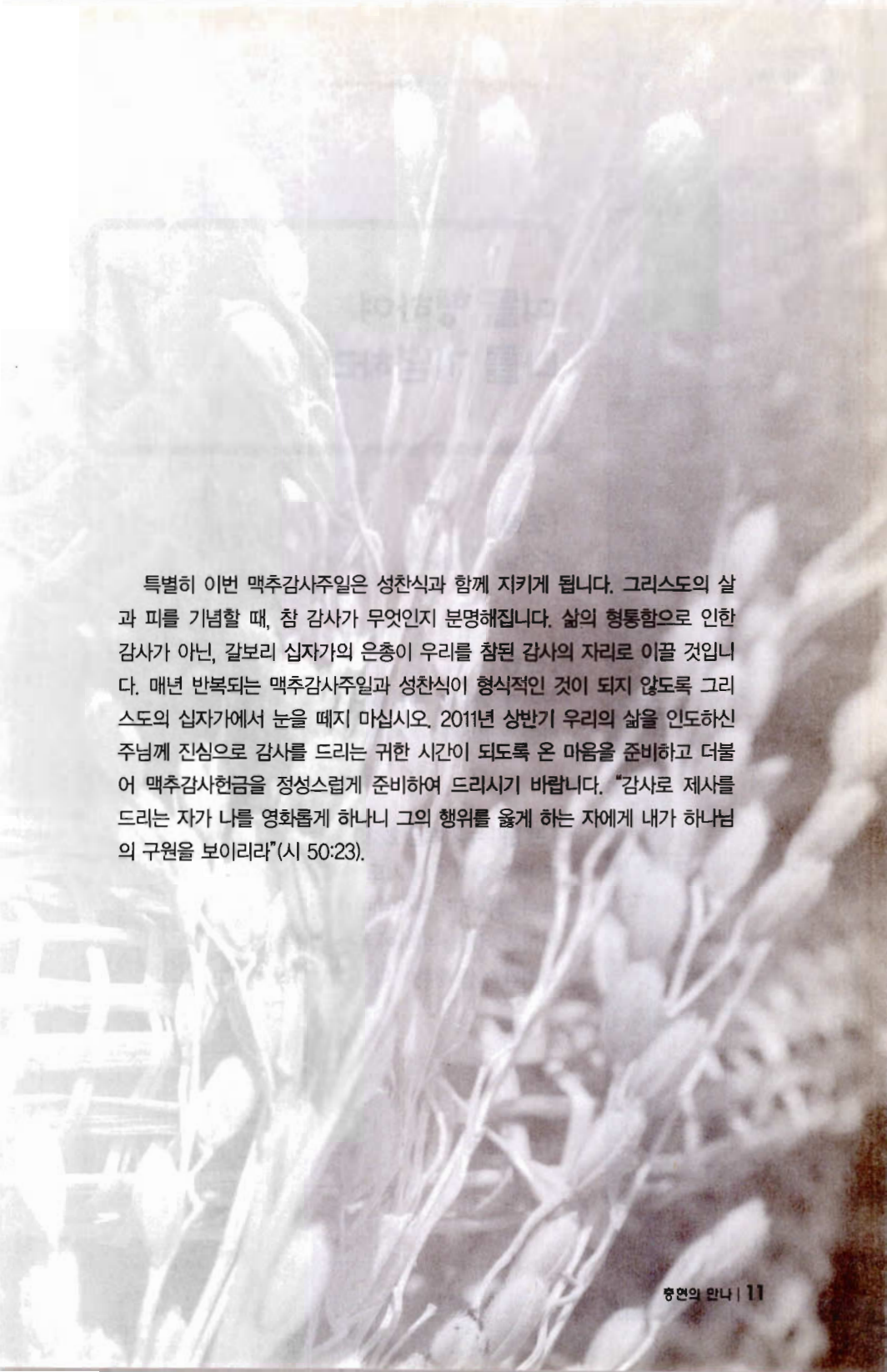
### 기도노트



##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라!

이번 주일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었던 맥추절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추절(출 23:16)은 관련 명칭 중 가장 오래된 명칭이며, 현대에는 칠칠절, 오순절 등으로 불려졌습니다. 칠칠절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시작하여 7주간의 곡물 추수기가 끝난 뒤의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오순절 또한 추수기와 관계된 말로, 이 날이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농경 사회가 아닌 현대 사회의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통하여 얼마만큼 추수를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눅 10:2). 또한 영혼의 추수 곧 전도 사역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지?' 살펴야 합니다(갈 5:22). 영혼의 추수보다 더 귀한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맥추감사주일에는 성찬식과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참 감사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삶의 형통함으로 인한 감사가 아닌, 갈보리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를 참된 감사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맥추감사주일과 성찬식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2011년 상반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온 마음을 준비하고 더불어 맥추감사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1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눅 22:19

2과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창 5:3~27

3과  
성경과  
그 전투  
마 4:1~11

4과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요 21:22

5과  
많은 지체,  
오직 한 몸  
고전 12:12~27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3 주일

4 월요일

☐ 고린도전서 3장

5 화요일

☐ 고린도전서 4장

6 수요일

☐ 고린도전서 5장

7 목요일

☐ 고린도전서 6장

8 금요일

☐ 고린도전서 7장

9 토요일

☐ 고린도전서 8장

##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 1

### | 초점 |

예수님을 기념하자

### | 찬송 |

찬송가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 본문 | 누가복음 22: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의 본문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만찬에 함께 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

주의 만찬에서 떡을 취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어떤 것을 기념해야 할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 갈보리를 기념하자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갈보리를 기념해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에는 다양한 전설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힘은 전설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 2000여 년 전, 갈보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요일 1:7

계 5:9

## 무덤을 기념하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은 몸이 장사된 무덤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 습니다!

※ 마태복음 27:45~50,60, 누가복음 23:50~53 말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 부활을 기념하자

우리는 새 생명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몇 명이 그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왔을 때, 두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눅 24:5~7).

눅 24:46~48 \_\_\_\_\_

\_\_\_\_\_

요 11:25~26 \_\_\_\_\_

\_\_\_\_\_

## 감람산을 기념하자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감람산을 기념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행 1:9 \_\_\_\_\_

\_\_\_\_\_

히 1:3~4 \_\_\_\_\_

\_\_\_\_\_

\_\_\_\_\_

## 재림을 기념하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행 1:10~12 /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_\_\_\_\_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 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인자의 징 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 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 주님의 만찬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에도 재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전 11:26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_\_\_\_\_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 25:31 \_\_\_\_\_

갈보리에서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무덤에 장사된 죽은 몸, 삼 일 만의 부활, 감람산에서의 승천과 재림을 기념하며 주의 만찬으로 나아오십시오. 이 중요한 다섯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둔 채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의 갈보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념하십시오.

벧전 4:13 \_\_\_\_\_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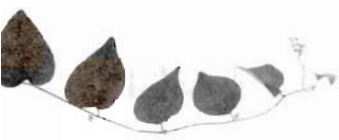
계 2:10 \_\_\_\_\_

\_\_\_\_\_

\_\_\_\_\_

## | 간절한 기도 |

- 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주일이 되게 하소서.
- ② 주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 재림을 기억하게 하소서.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lines.



# 시기와 분쟁

고린도전서 3장

찬송가 609장

목/상/하/트

• 사역자(5절) : 사역자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로서 이 용어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중 '식사' 시종드는 사람을 의미했다. 이 용어가 후에는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본 장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사역자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종을 표현한 것으로 종에 대한 다른 표현인 '도노스'와 유사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라 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연합함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시기와 분쟁에 대한 소식은 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그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일 뿐이며,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터를 닦는 것이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전을 세워 나가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거룩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며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결코 사람을 따라서 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섬김과 봉사는 오직 성도가 주님 안에 세워져 나가는 일을 위한 동역자로서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이 일하고 있다면 스스로 겸손해야 할 것이며, 성도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모든 것은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과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전 3:23)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월요일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함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오직 주님이 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결코 스스로를 높이고 서로를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삶은 한없이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세워진 그들의 모습은 마치 왕들과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탄식합니다. 그는 이와 같은 권면과 꾸짖음을 오직 사랑하는 자녀를 대함 같이 하는 것임을 말하면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된 자로서, 복음 안에서 낳은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며 오직 복음 안에서 낮아지고 고난 당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성도는 서로를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서로를 판단하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서로 나뉘어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져야 하며, 함께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의 몫입니다. 그러할 때 십자가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입술의 자랑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 4:15)

고린도전서 4장

찬송가 449장

목/상/노/트

·충성(2절) : 충성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암서 미쁘사다라고 번역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용어가 믿는 자들에게 사용되어 충성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피스토스라는 용어가 계약 맺는 자들의 '신빙성, 충성, 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약성경 안에서 피스토스는 인간에 대해서 사용될 때 자주 충성됨으로 번역된다.

## 기도제목

①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기도노트

##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고린도전서 5장

찬송가 253장

목/장/느/트

**고린도 교회 안의** 나뉘고 분쟁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나누었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보여지는 성적인 죄, 곧 음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근친상간을 묵인하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마땅함을 말하며, 고린도 교회가 죄를 허용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형제의 모습 속에서 그 같은 모습 곧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음 등의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떠나 보내야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같은 악한 죄를 짓는 자를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고 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가 당연히 나타내야 하는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던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 강력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결코 복음의 이름으로 형제된 자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냥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죄에서 떠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쫓는 것이 오히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신 주님은 결코 우리가 그 죄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음행(1절) : 음행포르노(101)는 매음, 간음, 음란한 행위를 의미한다. 산악성경에서 포르노(101)는 일반적으로 부정한 성교에 대해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는 은유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전 5:8)

### 기도제목

① 사람에게 좋은 자가 아닌 순결한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기도노트

# 소송문제와 음행

목요일

7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 성도들 간에 다툼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것이 용납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다툼을 일으키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 자체를 멀리할 것을 경고합니다. 후반부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며 근본적으로 이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가 음란의 죄를 통하여 창녀의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으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자이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산 자로 여길 때 성도들의 모임으로써 교회는 계속해서 다툼과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율음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모습,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 등 이 모든 모습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

고린도전서 6장  
찬송가 342장

록/상/노/트

· **미혹(9절)** : 미혹으로 번역된 물라니오는 배회, 방황, 이 말을 뜻하는 물라네에서 유래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비유적 의미로 잘못 인도하다, 속이다는 의미와 길을 잃다, 잘못된 길로 이끌리다, 방황하다' 그리고 잘못되다, 속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기도제목

①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자체로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기도노트

#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자

고린도전서 7장  
찬송가 508장

목/상/노/트

음행의 죄를 멀리하라는 6장의 권면에서 더 나아가 결혼의 문제를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1~7), 독신 생활과 이혼(8~24), 처녀의 결혼 문제(25~38), 과부의 재혼(39~40)입니다. 바울은 먼저 결혼을 통하여 음행을 피하고, 사탄의 시험을 피할 것을 권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너무 매이지 말 것을 말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나 절제할 수 없을 때는 결혼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결혼을 했다면 이혼하지 말 것을 주님이 명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이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세워지기를 구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바울은 처녀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과부된 자는 다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죄를 피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결혼을 통하여 만족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율법으로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결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습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삶의 한 가운데 두어야 함을 기억하며, 세상 일에 매이지 않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고 너희에게 울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전 7:35)

• 외행(31절) : 외행이라는 용어는 태도, 형식, 모양, 생활 양식, 의복을 뜻하는 스킴의 번역어이다. 이 스킴에는 예코(가장), 취다, 소유하다에서 유래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문화나 자세 등 가변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 기도제목

① 세상 일에 내 마음이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자주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기도노트

# 우상에게 바친 제물

9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문제 중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이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지식만을 붙잡고 있을 때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게 되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같은 문제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내가 누리는 믿음의 자유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멸망하게 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닐지라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임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자유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나 복음에 대하여 종된 자들입니다. 그 같은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우선 순위를 바르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전 8:9)

고린도전서 8장

찬송가 286장

목/상/노/트

·**떡을 세우나니(1절)** : 떡을 세운다는 이 용어는 ‘짓다, 세우다, 다시 세우다’라는 의미의 오이코도메오를 번역한 말이다. 성경 안에서 이 용어는 실제로 ‘집을 세우거나 건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바울은 이 용어를 공동체의 영적 책무에 관련하여 사용한다. 성령께서 한 사람의 은혜와 영적인 행동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한 것이다. 이처럼 성령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일에 대하여 바울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기도제목

①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려놓는 믿음을 주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0)이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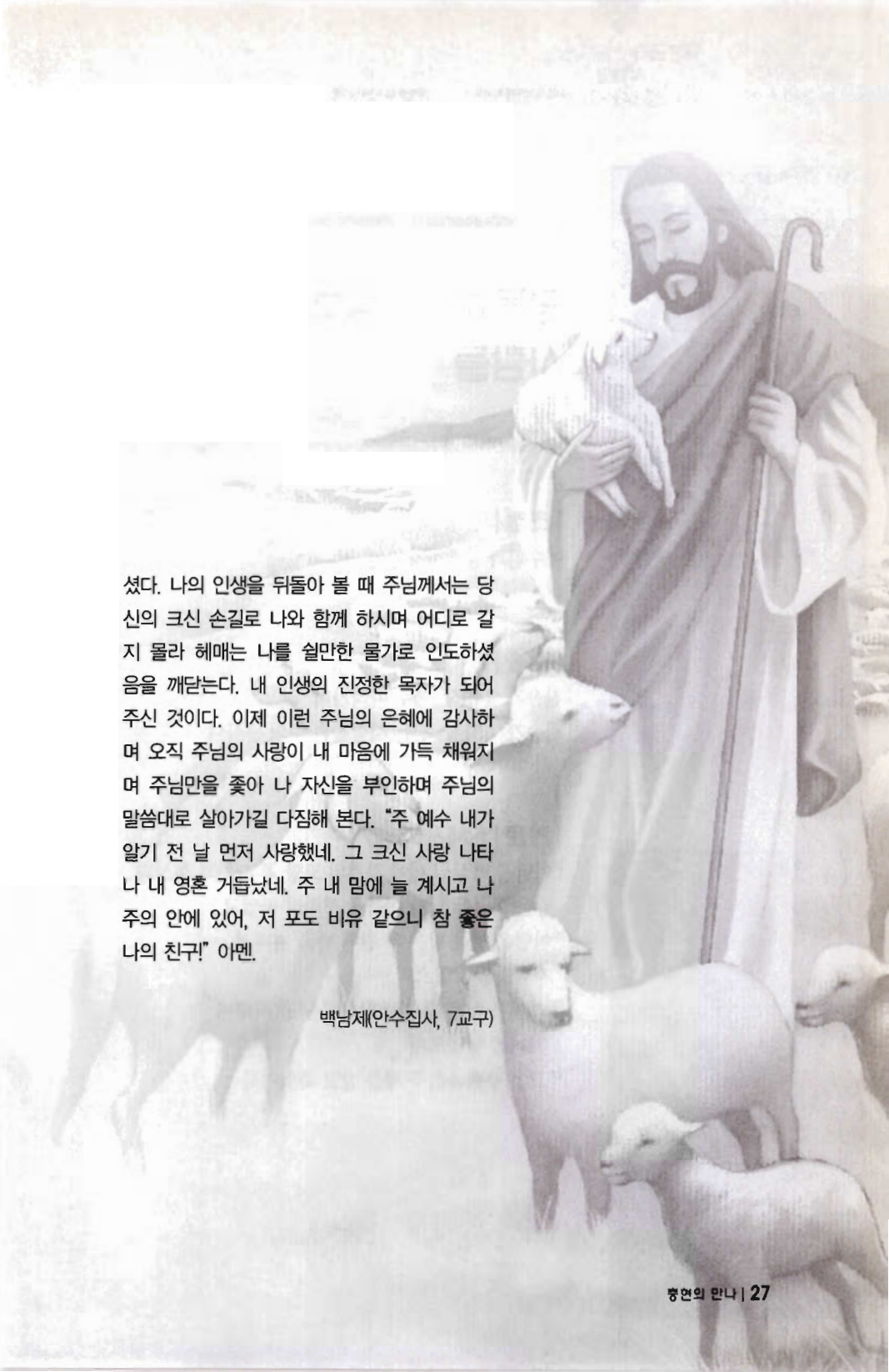
## 기도노트



##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중학교 입학식 날, 강당 중앙에 걸려 있는 초상화 속의 한 외국인을 바라보며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렇게 사진 속의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또한 나누어 준 악보가 학교 고가인 줄 알고 열심히 합창 연습을 하였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노래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였던 것이다. 이렇게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얘야, 네 몸은 비록 하나님께 가 있지만 마음만은 부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 누가 알겠나?'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몰랐던 내게 다가오고 계셨다. 채플 시간의 짧은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고3이 되어 수험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은 점점 잊혀져갔다.

이처럼 탕자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아내를 통해 충현교회로 인도하셨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점차 알아가게 되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랜 불교신자였던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



섰다. 나의 인생을 뒤돌아 볼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나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깨닫는다.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다. 이제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며 주님만을 좇아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다짐해 본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백남제(안수집사, 7교구)

이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눅 22:19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창 5:3~27

성경과  
그 전투  
마 4:1~11

네게 무슨  
상관이나?  
요 21:22

많은 지체,  
오직 한 몸  
고전 12:12~27

매일 성경, 매일 예=>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0 주일

11 월요일

☐ 신명기 9장

12 화요일

☐ 신명기 10장

13 수요일

☐ 신명기 11장

14 목요일

☐ 신명기 12장

15 금요일

☐ 신명기 13장

16 토요일

☐ 신명기 14장

##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2

### | 초점 |

예수님과 동행하자

### | 찬송 |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 | 본문 | 창세기 5:3~27

<sup>(3)</sup>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sup>(4)</sup>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sup>(25)</sup>라멕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sup>(27)</sup>그는 구백육십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본문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한 첫 기록을 접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에덴동산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그 경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덴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아담이 오래 살기는 했지만 그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아담은 첫 공동묘지를 만든 장본인이고, 그의 모든 후손들도 그곳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 9:27

---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읽는 것이 슬프지만, 이 말씀은 또 다른 소망을 줍니다. 다양한 죽음의 기록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취함을 받은 한 사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전부인 것 같은 창세기 5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은 930살(창 5:5)까지 살다 죽었고, 그의 아들 셋은 912살(창 5:8),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5살(창 5:11),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산 므두셀라는 969살(창 5:27)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창 2:16~17).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슬프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로 인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밋미암은 그분의 저주입니다. 실제로, 자연적으로 태어난 첫 자녀들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첫 인간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자연사가 아닌, 자신의 형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창 4:8

죄의 결과는 끔찍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이후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롬 6:23

## 생명은 불완전하다

생명은 분명히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만 보더라도 확실히 불완전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다른 때에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은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미룹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여러분이 오늘, 내일 또는 그 후에 죽게 될 것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벧전 1:24~25

---

---

---

약 4:13~17 /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나이가 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린 아기와 과 어린이들도 죽습니다.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전 12:1)라고 권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인 회중들에게 어리석은 부자가 한 말을 가지고 구원의 긴급성을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눅 12:19~20

---

---

---

## 영생이 있다

영생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확실합니다. 많은 공동묘지 비석들이 있지만, 그 비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 5:21~24 /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_\_\_\_\_  
\_\_\_\_\_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공동묘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새 피조물이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 살았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고후 5:7,17 \_\_\_\_\_  
\_\_\_\_\_  
\_\_\_\_\_

엡 2:8~9 \_\_\_\_\_  
\_\_\_\_\_  
\_\_\_\_\_

이 공동묘지 안에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2~13).

우리 모두는 공동묘지에 살고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공동묘지를 걷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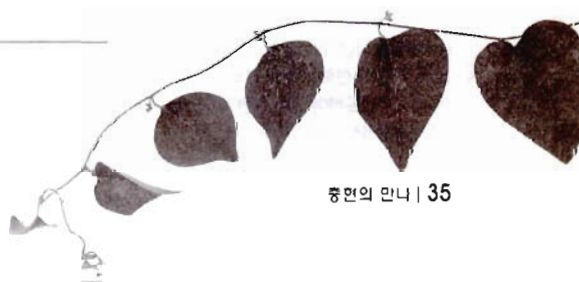
히 3:1 /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일 1:2 /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 | 간절한 기도 |

- ① 우리가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맹세를 이루심

신명기 9장  
찬송가 290장

목/상/노/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싸워주셨습니다(1~4절). 이는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5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굳은 백성'이었습니다(6절). 그들은 교만하고, 고집이 세며, 반역적이고, 도발적이며,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를 좋아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끈질긴 반역은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19~21절). 모세는 목이 굳은 백성인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 사십 일을 밤낮으로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간구했습니다(25~29절).

그 땅을 차지함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니 자랑치 말라고 하십니다(4절). '네가 정직해서도 아니요, 의로워서도 아니며, 단지 그들이 악해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악하지 않습니까? 악합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악을 제하였으니 너희에게는 자량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선택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악한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택십니다. 악을 따르지 않고 물리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 **총회(10절)** : 구약에 123회 나오며 전쟁 또는 배반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신 9:5)

## 기도제목

- ① 내게 보이신 주님의 행하심이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택심만을 선포하게 하소서.
- ② 1년 1인 1명 (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기도노트

# 여호와는 나의 기업

**영원히** 진멸당할 죄를 범한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처음과 같은' (1절), '처음 것과 같은' (3절), '처음과 같이' (4, 10절) 반복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14~15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12~13절).

레위지파는 자기들의 분깃으로 땅을 나누어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의 몫이었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가 차지한 몫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체였던 것입니다(9절). 레위지파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벧전 2:9). 이제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지파가 가졌던 기업도 우리 몫이 됩니다. 그들의 기업은 세상의 물질,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에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신명기 10장  
찬송가 435장

목/창/노/트

• 브에롯 브나야간(6절) :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하던 광야 생활 중에 진을 쳤던 장소로 '아아간의 아들들의 우물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신 10:9)

## 기도제목

①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기도노트

## 온전한 선물

신명기 11장  
찬송가 299장

목/창/노/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이스라엘은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1~7절). 그 일을 목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약속하여 주십니다(8~9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흉년과 파멸을 약속하셨습니다(13~17절). 하나님은 후손들까지 약속하신 복을 받기 원하셨습니다(18~2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면 복을 받지만, 그 계명들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게 하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십니다(22~28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14절).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을 청종하고 지켜야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3절). 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 아무리 노력해도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조건적 명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온전한 은혜, 온전한 선물을 소망하여 그 가치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24절) : 광야는 사해 지역과 남방을 가리키며, 레바논은 레바논 산맥을 가리킨다. 즉, 남쪽의 경계 끝과 북쪽의 경계 끝을 잇는 지역을 의미한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노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신 11:7~8)

## 기도제목

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기도노트

## 하나님의 말씀대로

14

하나님은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땅에서 자기 백성이 살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없애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야 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1~3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4~7절). 약속의 땅에서는 광야에서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안 되며 오직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행해야 했습니다(8~1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할 때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20~25절).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리나 도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신들을 모두 없애고,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율리와 도덕과 문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방편이 되어 결국 복음을 몰아내고 이방의 종교를 혼합하게 하는 은밀한 도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 내 소견대로 섬겨왔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을 읽으며 참 구주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찬송가 204장

묵/상/노/트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신 12:8)

• **번제(13절)** : 제단 위에서 제물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 바치는 제사이다.

## 기도제목

① 지금까지 내 방법, 내 소견대로 섬겨왔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을 보고, 읽고, 깨닫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 기도노트

# 너희를 시험하심

신명기 13장  
찬송가 343장

목/상/노/트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나 꿈 꾸는 자들이 행하는 기적을 어느 정도 허용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자기 백성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지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1~3절).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를 분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5,1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12~18절).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내시며, 또한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꿈 꾸는 자나 선지자의 이적과 기사를 볼지라도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꾀어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꿈 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다른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적과 기사에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이적과 기사, 돈과 명예 등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진멸할 물건(17절) :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것으로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물건을 가리킨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 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신 13:3)

## 기도제목

① 이적과 기사, 돈과 명예 등으로 유혹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당히 선포함으로 날마다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천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기 십자기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기도노트

## 부스러기에 감사한 삶

16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불량한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1~2, 21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땅의 모든 짐승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 나는 새를 주시되,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지 구별해 주십니다(3~20절).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시며, 그 땅이 내는 모든 소산물의 주인이십니다(22,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함께 기뻐하며,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23~26절).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2절). 이스라엘을 성민이라 하시고,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별하여 주십니다(21절). 마지막 절에서는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저축하여 그들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밋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선민이 배불리 먹고, 이방인과 나그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부스러기를 나누는 나라로 쓰임 받았습시다. 예수님은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하신 다음 부스러기를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스러기를 받아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부스러기에 감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밋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9)

신명기 14장

찬송가 214장

목/상/노/트

• 사반(7절) : 수리아의 바위나 구리를 의미한다. 사반은 귀가 조금 작다는 것 외에는 거의 토기와 유사하고, 바위 지역을 좋아한다.

## 기도제목

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시심을 감사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② 여성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기도노트



## 예수님을 믿는 참성도

'교인의 종류'를 재미있게 풍자한 글을 읽었다. 우선 '감투 교인'이 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감투를 주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인력거 교인'은 심방을 가서 모셔와야만 겨우 나오는 교인이다. '유람선 교인'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갔다 하는 교인이다. '행사 교인'은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만 얼굴을 내미는 교인이다. '종이 교인'은 비만 오면 축 쳐져서 안 나오는 교인이다. '가시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가시 노릇하는 파괴적인 교인이다. 풍자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에 씁쓸하다.

나는 어떤 교인인가? 아니 교인, 성도, 신자 등을 따지기 전에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가?'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차원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행 8:22)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마 16:24).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어떤 교인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두자(갈 6:14).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교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참 신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롬 1:1). 아멘.

이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눅 22:19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창 5:3~27

3과  
성경과  
그 전투  
마 4:1~11

4과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요 21:22

5과  
많은 지체,  
오직 한 몸  
고전 12:12~27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7 주일

18 월요일

☐ 신명기 15장

19 화요일

☐ 신명기 16장

20 수요일

☐ 신명기 17장

21 목요일

☐ 신명기 18장

22 금요일

☐ 신명기 19장

23 토요일

☐ 신명기 20장

## 성경과 그 전투

3

### | 초점 |

예수님을 의지하자

### | 찬송 |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굳기

### | 본문 | 마태복음 4:1~11

- <sup>(1)</sup>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sup>(2)</sup>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  
<sup>(10)</sup>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sup>(11)</sup>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또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강력하든 간에,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쫓아다닙니다. 마귀는 매일, 매순간,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주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을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계략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벧전 5:8 \_\_\_\_\_

※ 지금 내가 사탄과 벌이고 있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유혹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겪어야 하는 매일 매일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육박전과도 같은 전투이지만 성경은 승리를 확실히 보장합니다! 오늘의 본문말씀은, 주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투를 벌일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아닌 성경을 인용하심으로 대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투에서 성경으로 대답하신 것은 참으로 최적의 대응이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은 몹시 굶주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약올려 하나님께서 주신 온사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쓰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예수님의 대답을 정리해 보십시오(마 4:3~4 ; 신 8:3).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는 빵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엡 6:17

히 1:3 /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의 □□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자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높이 우뚝 솟은 곳에 서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는 기분은 분명 대단했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경건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 마귀의 두 번째 시험과 예수님의 대답을 정리해 보십시오(마 4:5~7 ; 신 6:16 ; 민 14:22~23).

---

※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편 91:11~12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아주 비슷합니다. 악하고 교묘한 사탄의 꾀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고후 11:13~15 \_\_\_\_\_  
\_\_\_\_\_  
\_\_\_\_\_  
\_\_\_\_\_

시 78:40~41 \_\_\_\_\_  
\_\_\_\_\_  
\_\_\_\_\_

##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경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 마귀의 세 번째 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사람과 물건을 경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경배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진실로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신 6:13~15

---

---

---

예수님은 마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마 4:10). 결국 사탄은 예수님에게서 도망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마 4:11).

요 16:33

---

---

치열한 전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적을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하십니까? 반드시 성령의 힘이 매순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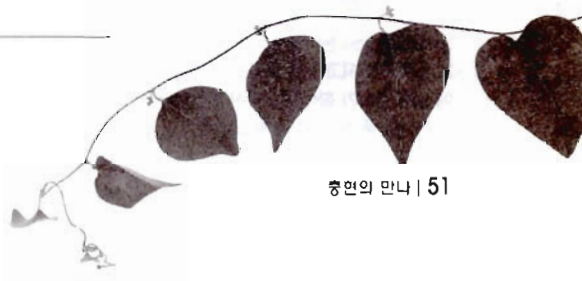
행 18:28 / 이는 □□으로써 □□는 □□□□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러라

딤후 3:15 \_\_\_\_\_  
\_\_\_\_\_

## | 간절한 기도 |

- ①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② 매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 ③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 본의 결정체 예수

신명기 15장

찬송가 455장

목/창/노/트

**포로 된 자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7년마다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여호와의 면제년'을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1~2,9,12절). 빚에 억눌려 있던 자들은 이 면제년을 통해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종의 굴레에 묶여 있던 자들은 사슬에서 풀려나 해방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15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면제년을 허락하신 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대우하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15절)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공휟하심을 얻어 해방되었던 그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여 그들도 종들에게 이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고, 앞서 행하십니다. 본을 보여 주시고, 그 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본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 **이방인(3절)** : 이스라엘에 귀화한 자가 아니라 임시로 체류하는 자이다. 귀화한 자는 '나그네'로 나타나며 이방인과 구분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나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신 15:7~8)

## 기도제목

①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 기도노트

# 유월절과 주의 만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빔월을 지켜 유월절 예식을 행하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 누룩 없는 떡과 구운 고기를 먹으며 출애굽 때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며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1~8절). 칠칠절을 지켜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하십니다(9~12절). 칠칠절은 '백추절'로도 불리고, 나중에는 '오순절'이라 불렸습니다(행 2:1). 하나님은 또한 칠 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13~17절). 그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의를 요구하십니다(18~22절).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3절).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 기억하듯,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림 받은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것에서 영적 이스라엘의 것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와 관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주의 만찬의 그림자였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 상승이 유월절 안에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자녀에서 둘째 아담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놀라움과 감격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신 16:3)

신명기 16장  
찬송가 232장

목/상/노/트

•아빔월(1절) : 히브리력의 정월이며 오늘날의 3~4월에 해당된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نيسان월로 부르게 되었다.

## 기도제목

①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삶과 피에 감격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기도노트

# 주님은 우리의 왕

신명기 17장  
찬송가 313장

목/장/노/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한 사람을 심판할 때에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처형해야 했습니다(2~7절). 또한 자신의 힘과 자력으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세우신 지도자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8~13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구하려고 애쓰거나, 정략적으로 결혼하여 아내를 많이 두거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방인의 정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14~17절).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을 선택하신 참된 왕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18~2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날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놀랍게도 사사시대에 이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며 이스라엘 왕의 할 일을 명하였습니다(14~20절). 왕은 율법책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곧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언제나 진짜 왕의 대리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책, 곧 말씀을 읽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깊이 있게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이 율법서의 등사본(18절) :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사내 산 언약의 원문서 사본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신 17:18~19)

##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의 아들에 관한 모든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기도노트

#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애굽에서 속량받은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께 드리진 지파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성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땅을 가질 수 없었고, 오직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중 일부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1~2절). 하나님은 종인 레위인의 길을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6~8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온갖 우상과 점쟁이와 마술사와 무당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일에 대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9~14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선택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벌하리라 말씀하십니다(15~20절). 또한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할 것도 요구하십니다(21~22절).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후 수많은 선지자가 나타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선포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좋은 소리만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칭찬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몰랐습니다. 예수께는 중첩도 있었고, 성취도 있었습니다(22절).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했으나 오히려 경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신 18:18~19)

신명기 18장  
찬송가 497장

룩/상/노/트

•분깃, 가업(1절) :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 레위 지파에게는 할당된 분깃이 없었다.

##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기도노트

# 22

신명기 19장  
찬송가 70장

목/상/노/트

## 도피성 예수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빨리 도망할 수 있게 가까운 거리에 도피성을 마련하고, 쉽게 도달할 수 있게 그 도로를 닦게 하셨습니다. 도망하는 중에 복수심에 마음이 불타는 보복자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1~3절).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세밀히 돌아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면 그만큼 도피성에 쉽게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피성을 더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8~10절). 그러나 마음에 미움을 품고 고의로 사람을 해친 자에게는 그 죄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셨습니다(11~13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동체에서 거짓된 증언으로 이웃을 해치는 자를 무섭게 벌하시며 선한 질서를 세우십니다(15~21절).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 보복법을 제시하십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고 하십니다. 곧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법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시행된다면 이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베풀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죄는 죄 갚으로 갚아야 되는 원칙을 지키시되 내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 갚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신 19:21)

• 세 성읍(2절) : 요단 강 동편에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 이미 도파성으로 지정되었고,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나중에 도파성으로 지정되었다(수 20:7).

### 기도제목

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백하며 그분만이 나의 도피성이 되심을 오늘도 인정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기도노트

##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3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분이므로 대적들을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싸울 것을 촉구 하십니다(1~4절). 백성 중에 집이나 재산이나 여자 등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길 만한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며, 두려워하고 마음이 허약한 사람도 군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5~9절).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할 경우, 우선은 그 성읍 사람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이 제안을 거절할 때 정당한 방어를 위해 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싸우되 가나안의 타락한 죄성에 물들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10~2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적과 싸우려 할 때 상대의 군마, 전차, 군인들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함을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하여 보이고 무서워도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무섭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탄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불의와 거짓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소원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신 20:1)

신명기 20장

찬송가 399장

목/상/노/트

• 화평(10절) : 히브리어 'shalom'으로 평안, 번영, 행복,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나, 이 문맥에서는 '조약'을 의미한다.

## 기도제목

① 길이와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불의와 거짓,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 기도노트



## 복음의 능력

선교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1860년 경에 복음이 들어왔으나, 불교가 95% 이고 기독교는 2%에 불과할 정도로 복음 전파가 어려운 선교 불모지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부족한 수확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농아인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모든 인간의 생각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도착한 후 먼저 농아인들이 있는 일터를 알아보기 위해 농아인협회를 방문하였지만 연말 휴가로 농아학교는 방학 중이었고, 직장들도 문을 닫아 농아인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소개로 농아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집이 멀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농아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영접기도까지 따라하는 농아인들을 바라보며 이곳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농아학교 영어교사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였고, 학생들이 고향에서 돌아오면 복음을 가르치겠다고 전도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농아인과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농아교사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농아학교 선교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학교 옆에 있는 세차장에서 일하

는 사람들이 수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달려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농아 친구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세차장에서 많은 농아인을 만날 수 있었고, 매일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특히 농아인들 중에 한 명은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예전에 나쁜 행동으로 양팔에 문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으로 우리와 만났으나, 3일 동안 매일 우리와 만나면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배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농아인들을 찾아 대학교와 시장에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농아인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기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도했던 농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선교의 모든 준비 과정과 활동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지호(집사, 에바다부)

이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눅 22:19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창 53~27

성경과  
그 전투  
마 4:1~11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요 21:22

많은 지체,  
오직 한 몸  
고전 12:12~27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4 주일

25 월요일

☐ 신명기 21장

26 화요일

☐ 신명기 22장

27 수요일

☐ 신명기 23장

28 목요일

☐ 신명기 24장

29 금요일

☐ 신명기 25장

30 토요일

☐ 신명기 26장

## 네게 무슨 상관이냐?

### | 초점 |

예수님을 따르자

### | 찬송 |

찬송가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 본문 | 요한복음 21: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오늘의 본문말씀에서 예수님은 요한(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에 한 가지 질문과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중,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제자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 베드로 \_\_\_\_\_
- 요 한 \_\_\_\_\_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 가서 그가 해야 할 사명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소명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이자 자신의 경쟁자인 요한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 장소들, 심지어 여러 일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하실지 알고 싶어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오로지 예수님만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

##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방황할 때

우리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방황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님께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식, 부모 또는 친한 친구라도 항상 성경을 읽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을 실제로 믿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궁금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패는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변명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롬 14:12 / 이렇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하리라

계 2:23

---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거나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타인이 저지른 실패 너머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실수한 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히 12:14

---

## 다른 그리스도인이 상처를 주었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님께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선한 그리스도인들도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명분이 부주의한 말이 되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험담에 상처받은 희생자들은 교회 안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험담하는 무리들은 위험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험담이 상황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요 21:23 /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_\_\_\_\_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자 할지라도 \_\_\_\_\_ 하신 것이리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매우 강력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험담하는 자들의 결과들을 보고 또한 잘못된 말을 들으며 낙심하게 됩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린들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 따라가십시오.

약 3:8~10 \_\_\_\_\_  
\_\_\_\_\_  
\_\_\_\_\_  
\_\_\_\_\_

엡 3:13 \_\_\_\_\_  
\_\_\_\_\_  
\_\_\_\_\_

##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지위, 은사, 재정 상태, 성공, 언변 등 무엇이든지 부러워할 때 우리에게 문제는 생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또 누가 예수님의 우편 또는 좌편에 앉게 되는지 따위의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양을 먹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여전히 요한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순교해야 할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요한도 어떻게 고통을 받을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 요한에 관해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요 21:22)과 그 의미를 정리해 보십시오.

---

하나님은 종종 자신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지위와 능력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신이 질투에 빠져 표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것이 자기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길로 부르시든지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삼상 16:7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골 3:25

---

지금 우리는 민감한 삶의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이 실패해 온 어떤 요인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청종할 차례입니다. “나를 따라!”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십시오.

마 16:24 \_\_\_\_\_

\_\_\_\_\_

갈 2:20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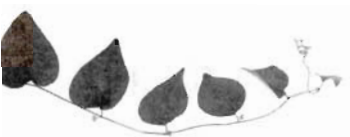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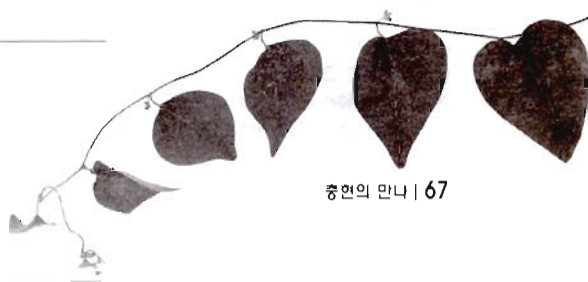
\_\_\_\_\_

\_\_\_\_\_

### | 간절한 기도 |

- ①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게 하소서.
- ② 땅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③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 나무에 달린 자

신명기 21장  
찬송가 144장

목/상/노/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언약 공동체에 미해결 살인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는 함께 나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가 죄로 오염되며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1~9절). 하나님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을 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따라 그 여자와 결혼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10~14절). 또한 마음을 받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만일 들일 경우에는 당연히 장자로서 받아야 할 두 몫의 재산을 받도록 그 권리를 인정해 주시며(15~17절), 부모의 말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그 부모가 공적으로 고소할 때 공동체가 함께 처리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도록 명하십니다(18~21절).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 당한 사람의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22~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므로 약속의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갈 3:13).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저주의 죽음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 손을 씻으며(6절): 무죄함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위이다(마 27:24).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신 21:23)

기도제목

기도노트

- ①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저주였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 깊은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소서.
-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 신 22:1~23:14 말씀은 거룩한 공동체 백성의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십계명의 제6계명과 관련될 수 있는 사례들을 열거하여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교훈하고 있으며(1~12절), 십계명의 제7계명이 지켜져야 할 결혼 관계에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13~30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형제의 소유가 곧 내 소유요, 내 소유가 형제의 소유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하십니다(1~4절).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를 깊은 애정을 갖고 돌보아야 하며, 언약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은 서로 섞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6~8절). 결혼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미워하여, 아내의 정조에 대해 없는 사실을 의심하며 비방하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지만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아내가 처벌 받도록 규정하셨습니다(13~21절). 또한 간음한 남녀의 문제는 사사로이 다루지 않고 당사자를 모두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공개적으로 처형하도록 하셨습니다(22~24절).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에 나란히 멍에를 메워 쟁기질하지 말며, 털실과 모시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섞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방인들과 섞여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신 22:9)

신명기 22장

찬송가 338장

묵/상/노/트

\*은 오십 제겔(29절) : 대략 750g 정도의 은으로 통간한 남자가 그 처녀의 부모에게 주어야 할 결혼 자참금이다.

## 기도제목

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순수함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로 152가 되게 하소서.

## 기도노트

신명기 23장

찬송가 494장

목/창/노/트

## 여호와와의 총회

**고환이 상한 자나** 사생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1~2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홀대하였기에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3~6절). 반면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삼 대를 기다린 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7~8절).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9~13절). 이스라엘의 진영이 거룩할 때 하나님은 그 진영을 떠나지 않으시며 그 진영 중에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4절). 언약 백성이 바알 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관습을 따라 성전에서 삼창이나 창녀로 활동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17~18절).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 갈 수 없었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3대가 지나서야 총회에 들어 갈 수 있었던 에돔과 애굽 사람의 모든 장벽과 걸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갈 3:28). 암몬과 모압보다 못했던 이방인인 우리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시 1:5).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절하실 만한 악의 요소, 죄의 요소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께 오늘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어,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가게 하는 분이십니다.

• **몽상(10절)**: 짐을 잘 때 저절로 장막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신 23:3)

### 기도제목

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거절하실 만한 악의 요소, 죄의 요소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깨끗함을 받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기도노트

## 자기 죄로 말미암아

28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으로 파경을 맞은 여자의 복지(1~4절)와 신희부부의 행복(5절)과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6~7절)뿐 아니라, 공동체의 보건과 위생(8~9절)에도 세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자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와 함께 그의 내면적인 정서까지 가난하지 않도록 도와주라 하십니다(10~13절). 또한 품꾼을 고용한 고용주는 그 품삯을 미루지 말고 당일 에 주라 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것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14~15절). 하나님은 항상 먼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가난한 자들, 즉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발에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다 거두지 말라 고 하십니다(19~22절). 이는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같은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16절). 하나님은 철저하게 개인의 죄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때문에 절대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철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하나님은 죄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신 24:18)

신명기 24장  
찬송가 298장

목/상/노/트

• 속량하신(18절) : 원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속량의 결과인 해방에만 적용하여 사용했다.

## 기도제목

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물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기도노트

## 복음의 원수

신명기 25장  
찬송가 357장

목/창/노/트

**범죄자를 처벌하는** 현장이나 짐승을 부리는 일에도 하나님은 자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또 범죄한 자를 때릴 때도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십니다(1~4절). 함께 살던 형제 중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 대를 잇기 위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을 대신하여 형의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는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5~6절). 두 사람이 싸울 때 자기 남편을 돕겠다고 다른 남자의 존엄함을 해치는 여자는 벌을 받게 됩니다(11~12절). 또 물건을 사고 파는 현장에서 형제의 눈을 속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13~16절).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17절). 하나님은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친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후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켜 아무도 그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랑하되, 하나님의 원수, 복음의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원수를 붙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태형(2절)** : 형벌에는 사형, 체형, 벌금형이 있었다. 태형은 체형에 속하며, 재판장은 죄인의 죄가 태형에 해당하면 그 죄의 경중을 가려 몇 대를 때려야 하는가를 판단해야 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이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신 25:19)

### 기도제목

① 내 삶에 복음의 원수를 붙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음이 있으면 분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 사남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기도노트

## 은혜의 출발점

30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함을 상기시킵니다(1~2절). 첫 열매를 들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3~9절). 약속의 땅에서 얻은 첫 소산물을 여호와께 드리며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이방인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10~11절). 그리고 셋째 해에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서 그것으로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해주라고 하십니다(1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도 약속대로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16~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 40년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었던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둘 때의 기쁨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기쁨과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단 하나, 그들의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은혜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약속이 주어졌고, 그분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신 26:3)

신명기 26장  
찬송가 430장

묵/상/노/트

• 방랑하는 아람 사람(5절) : 아픔을 가리키며 그가 아람 사람으로 불린 것은 아람 여자인 레아, 라헬과 결혼했기 때문이었다.

## 기도제목

① 은혜의 출발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올려 드리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기도노트



## ‘주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

1.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2. 자신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3.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은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4.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5. 오직 현재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6.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7.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8. 죄를 짓는 사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9. 사탄과 벗하는 사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10.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은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11. 권세를 원하는 사람은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12.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한 영적 승리」(Elmer L. Towns)

이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눅 22:19

공동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창 5:3~27

성경과  
그 전투  
마 4:1~11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요 21:22

많은 지체,  
오직 한 몸  
고전 12:12~27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31 주일

1 월요일 ☐ 고린도전서 9장

2 화요일 ☐ 고린도전서 10장

3 수요일 ☐ 고린도전서 11장

4 목요일 ☐ 고린도전서 12장

5 금요일 ☐ 고린도전서 13장

6 토요일 ☐ 고린도전서 14장

## 많은 지체, 오직 한 몸

5

### | 초점 |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자

### | 찬송 |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 | 본문 | 고린도전서 12:12~27

<sup>12:12</sup>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sup>12:13</sup>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

<sup>12:14</sup>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sup>12:15</sup>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의 본문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서 각 지체들이 서로 논쟁하며 싸운다면 몸 전체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지체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기능하기를 요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기 다른 모든 지체들을 연합하게 하십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 고린도전서 12:27, 사도행전 2:46~47, 에베소서 5:30~32 말씀이 전하는 핵심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이 특별한 연합은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19~22)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 개성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개성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12). 모든 지체들은 각기 다른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다 연결됩니다.

고전 12:13 /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신자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이며, 다른 지체들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은 돌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산 돌이 되어야만 합니다.

벧전 2:4~5 \_\_\_\_\_  
 \_\_\_\_\_  
 \_\_\_\_\_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 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고전 3:3~6).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각 지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전 3:7 \_\_\_\_\_  
 \_\_\_\_\_

## 열등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열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전 12:18~20).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그 어떤 지체들 일지라도 교회에 두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 안에 우리를 두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모든 지체는 각각의 중요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함께 섬겨야 할 때에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서로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종종 가장 약한 지체가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한 지체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기에 충분하므로 무시당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 10:24 \_\_\_\_\_

살전 5:14 \_\_\_\_\_

---

## 친밀한 유대감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친밀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전 12:25~26).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가 아파할 때, 여러분도 아프십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가 좋은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분도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서로 돌보아야 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일 3:23~24

---

---

---

요일 3:14~16 /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_\_\_\_\_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_\_\_\_\_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롬 13:10

---

---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때에 그리스도가 중심 되신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금,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잇돌이십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전 3:11,23)는 말씀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은총이 아닙니까!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십시오.

빌 4:1~2

---



---



---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 내가 부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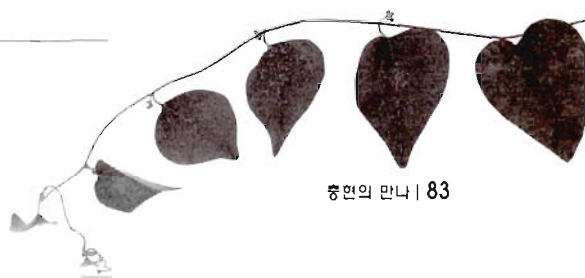
## | 간절한 기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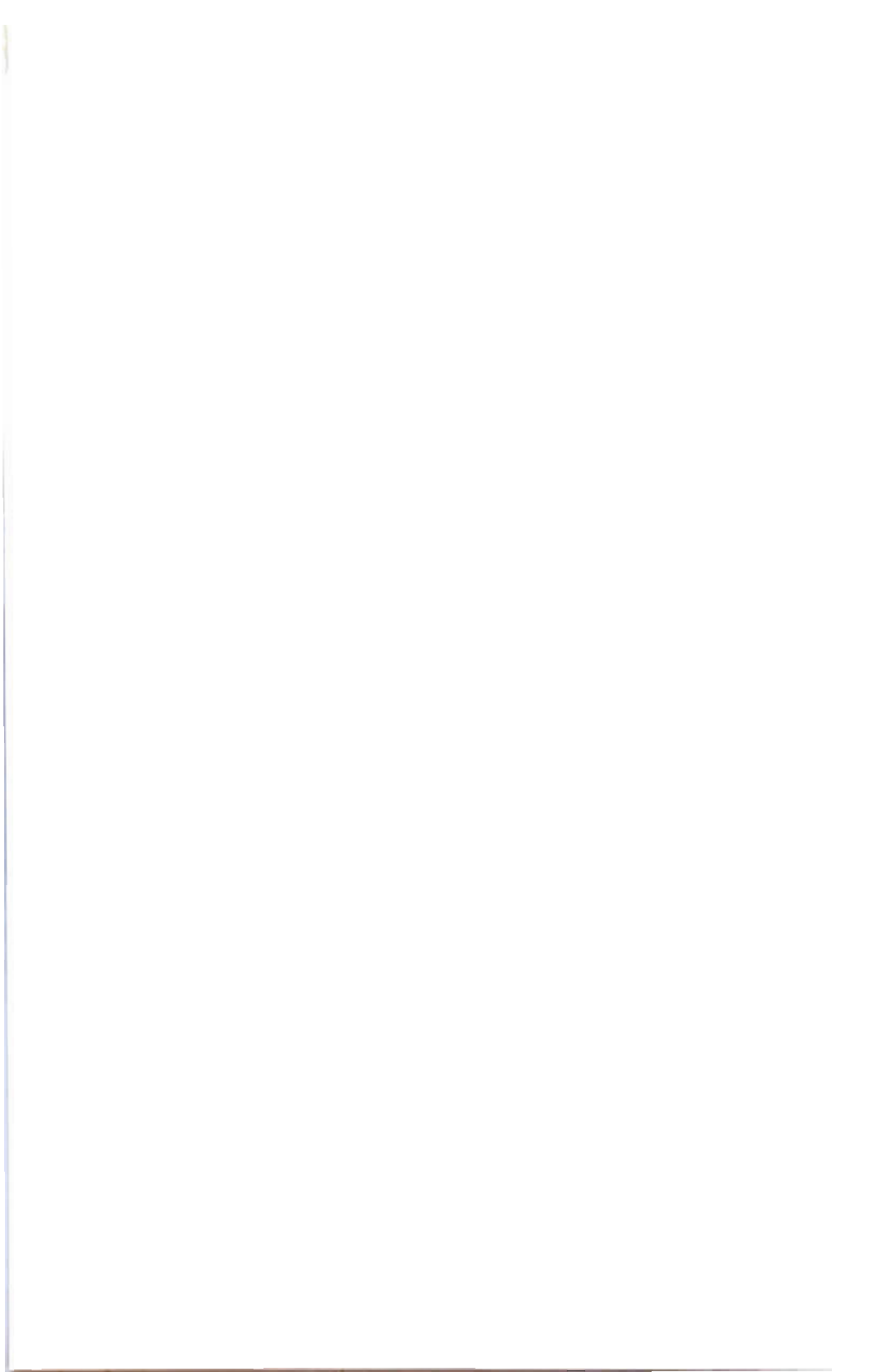
- 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 ② 땅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③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multiple horizontal lines for text entry.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1년 7월

Copyright© 2011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박지훈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